

# 내달 아파트 1만6567가구 입주… 공급 가뭄 숨통 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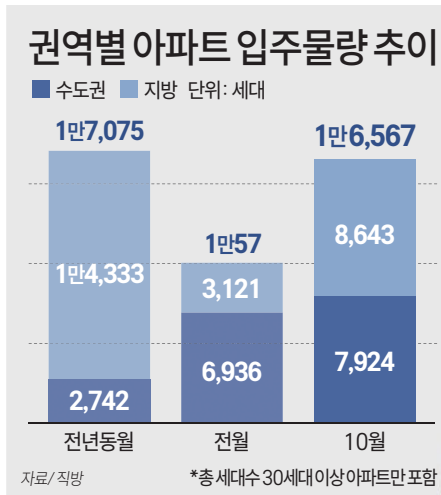
10월 입주물량 전월 대비 65% ↑  
수도권 7924세대, 지방 8643세대  
지방 물량 66% ‘전남광주’ 집중

오는 10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공급 가뭄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0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6567세대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65%나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924세대, 지방 8643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4% 증가했고, 지방은 3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물량 증가를 이끌었다.

직방 관계자는 “다음달 입주물량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늘었다기보다 특정 지역에 물량이 집중된 영향이 크다”며 “최근



월별 입주물량은 입주 시기를 맞는 지역과 단지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서울 3302세대, 경기 2788세대, 인천 1834세대가 입주한다.

서울은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 2451세대가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밖에 강서구 등촌동 ‘힐스테이트등촌역’ 543세대,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레네투스’ 308세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경기는 ▲의왕 733세대 ▲오산 730세대

▲안양 458세대 ▲파주 383세대 ▲부천 266세대 ▲시흥 218세대 등 7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은 검단구 불로동에서 ‘신검단중앙역센트레빌’ 1224세대와 검단호수공원역풍경채아바니티’ 610세대 등 총 1834세대다.

지방은 전남광주가 5671세대로 전체 물량의 66%를 차지했다.

장성군 진원면에서는 ‘첨단제일풍경채 A2블록’ 1845세대와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 152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에서도 삼강동 ‘삼각동위파크일곡공원’ 1004세대, 월출동 ‘첨단제일풍경채 A5블록’ 584세대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충남 776세대 ▲대전 749세대 ▲부산 400세대 ▲대구 299세대 ▲강원 264세대 ▲경남 232세대 ▲울산 158세대 ▲제주 94세대 등이다.

입주물량은 늘었지만 최근 입주율은 하

락세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5%로 전월 대비 8.6%포인트 하락하며 50%대로 내려왔다. 수도권 입주율은 80.8%인 반면 광역시는 55.5%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미입주 사유로는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짧은 기간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시기가 겹치면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실제 입주 상황은 지역별 공급물량과 주택 선호도, 기존 주택 처분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입주물량과 입주율, 지역별 수급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국토부, 수도권 공급 전체 물량 77%  
내년 말까지 전국 15만가구 입주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77%인 92만가구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청년 월세지원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문턱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 수도권 92만가구 공급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4만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 등이다.

건설임대는 공공이 집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고, 전세임대는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해 입주자의 전세를 지원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가구, 수도권 약 10만가구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가 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전체 주택의 약 10% 수준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다. 초기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과 향후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델을 도입한다.

### ◆ 역세권에 넓은 공공임대

새롭게 도입한 보편형 공공임대는 각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내부 구조와 마감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한다. 주요 사업장에는 고양창릉 B-1블록 1594가구, 남양주진접2 A-2블록 342가구 등이 포함됐다.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높인다. 신축 주택의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하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구조로 설계한다. 1인가구용 주택에는 전용 31㎡에 발코니를 확장해 실제 사용공간을 36㎡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임차료와 주택수선에 더해 공용관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 청년 월세지원 확대

미혼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월세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내년 100%로 높인다. 월 소득 기준으로는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최대 220만원까지 인정하던 제도는 사라진다.

지원 연령은 기존 19~34세에서 18~34세로 넓힌다.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상한연령도 최대 3년 연장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4개월을 유지하되 차상위 이하 청년은 48개월로 늘어난다. 청년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미혼청년의 2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 기자 cf56@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통인시장 상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이억원 금융위원장, 추석 맞아 시장 방문

### 소상공인 금융지원 점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민생현장을 살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최근 전통시장 경기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중인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안내도 제공했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8월 말부터 은행권이 시범운영 중인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제도는 매출, 업종 및 상권분석 등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승인, 한도

상향, 금리인하 등 더 많은 혜택을 제공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더 많은 은행들이 참가 예정에 있다.

9월부터 확대 개편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및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감감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리경감 3중 세트’에 대한 안내도 제공했다.

추석 연휴 전후의 금융권의 자금공급 확대 계획도 소개했다.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10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 등 지속적인 채무조정 방안의 확대도 약속했다.

/안승진 기자

## 삼성물산, 성수3지구 시공사 선정

### 최고 72층 2203세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성동구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성수2가1동 일대에 최고 72층 규모의 총 11개동, 2203세대와 업무·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공사비는 약 1조 8275억원 규모다.

성수3지구는 한강과 서울숲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은 물론 성수동 일대의 문화·상업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입지다. 향

후 성수 한강변의 주거 수준과 도시 경관을 새롭게 바꿀 대표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레비트 성수(RAEMIAN REVIRSEON GSU)’를 제안했다. 레비트는 절대적 가치의 영역을 의미하는 스웨덴어다. 정제된 대청과 균형을 통해 성수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삼성물산은 영국의 글로벌 건축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Foster+Partners)’와 협업해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프리미엄 조경 등 혁신 제안을 마련했다.

/안상미 기자

## 한화생명, 치매 전문성 갖춘 설계사 양성

### 세브란스와 전문교육 개설

한화생명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한화피플라이프 등 사회사업형 GA는 물론, 자사와 제휴를 맺은 모든 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치매 케어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사내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세브란스병원은 치매 예방·관리, 한화생명은 치매보험과 간병 리스크 컨설팅 교육을 각각 맡는다.

세브란스병원이 진행하는 파트는 김

어수 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이 맡았다. ▲치매 바로 알기 ▲인지기능 모니터링 자가검사 활용법 ▲치매 예방 가이드 등 실질적인 치매 예방·관리 노하우를 전달한다.

한화생명이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치매보험 구조와 경제적 대비 ▲간병 리스크 및 치매보험 컨설팅 등 실무 중심의 재무 교육이 이뤄진다.

치매는 진행 과정이 복잡해 고객 스스로 필요한 간병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설계사는 치매를 더 깊게 이해해, 고객 상황에 맞는 간병

대비책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화생명의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춰 영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은 더욱 신뢰도 높은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종호 한화생명 마케팅실장은 “세브란스병원의 의학적 전문성과 한화생명의 금융 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치매 상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며 “한화생명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치매 관련 상담에서 한층 전문적인 설명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 신뢰와 영업 경쟁력을 함께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